휴전 종료 D-2…호르무즈 재봉쇄 속 미·이란 종전협상 기로

이란, 해협 재개방 하루만에 다시 봉쇄…선박 잇단 피격 긴장 고조

파키스탄 중재로 물밑 협상 지속…우라늄 처리 문제 등 입장차 여전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AH-64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이란 군부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의 재폐쇄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여러 선박들이 해협 통과를 포기했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18일(현지시간) 공식 계정(@CENTCOM)을 통해 공개한 사진. /AF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하면서 협상 전망이 안갯속에 빠졌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활발하게 협상하며 2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18일(현지시간) 해협을 재봉쇄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군의 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재봉쇄 이유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목했다. 이란이 선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는데도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해상 봉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해협 재봉쇄와 맞물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개방'을 발표한 이후 유조선 10여척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재봉쇄 선언 이후 선박 피격 신고가 잇따랐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IRGC 연계 고속정 2척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척을 공격했으며, 오만 북동부 해상에서도 컨테이너선 1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 미군이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선 세계 곳곳의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 및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하루 이틀 내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 협상 타결에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를 선언하고 일부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1일(이란 현지시간 기준 22일)을 시한으로 잡고 종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협상이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도 있으나 2차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준비에 한창이다.

익스프레스트리뷴·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들에 따르면 아킬 말릭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보안 조치를 포함한 2차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전날 밤 밝혔다.

말릭 장관은 회담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다음 주는 파키스탄, 특히 이슬라마바드에 매우 중요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담판 날짜는 오는 20일, 장소는 1차 협상 때와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양국이 먼저 원칙적인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세부 합의를 담은 포괄적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문서 공개를 지시하는 과정에선 외계인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본 적이 없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금껏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거나 추락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조사에서 외계 기술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목격 사례는 일반 물체나 자연 현상을 오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연합뉴스

다만,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을 대표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그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19일 이란 국영 TV 연설에서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UFO 관련 흥미있는 자료 발견…곧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와 관련한 흥미 있는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보수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서들을 많이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첫 공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정부에 UFO와 외계생명체, 미확인 이상현상(UAP)과 관련한 정부 문서를 확인해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2월 "외계인이 실재한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팟캐스트 인터뷰 발언 직후에 이뤄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우주는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난했다.

中, 日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감시 영상 공개…대응 수위 올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둘러싸고 중국이 무인기 감시 영상까지 공개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은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일본 군함을 전 과정 추적·감시했다며 2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함번호 107인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가 포착됐으며, 대함미사일 탑재 모습도 확인된다고 중국 측은 주장했다.

중국군은 해당 군함이 지난 17일 오전 4시2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분 단위로 구체적인 이동 시간을 공개한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며 "중국이 대만해협 주변 해역과 공역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전구 부대가 상시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효한 감제(瞰制) 통제'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연합뉴스

키이우서 총기난사…5명 사망·10명 부상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총기 난사와 인질극이 벌어지면서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로이터통신과 우크라이나 신문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남성 한 명이 키이우 홀로시우스키의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벌인 후 슈퍼마켓으로 숨어들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용의자는 체포 작전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가한 범인이 사살됐다는 보고를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5명이 사망했고 10명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A(58)씨로 그의 주소지로 등록된 키이우 아파트에서 화재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